

본협회 국제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전략

필자가 국제위원회를 맡은 지 약 4개월이 지났다. 우리 협회 국제위원회에는 1999년에 처음으로 위원이 되어 활동을 시작했다가 2년 만에 회장이 바뀐 후 구조조정으로 평회원으로 있다가 2005년 다시 복귀하여 부위원장 자격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새로운 젊은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5개월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변화들이 개혁의 수준에서 지속되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동안 위원장 자격으로 협회의 많은 회의들을 참석하고, 다른 임원들과의 접촉·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 협회 내의 위원회 별 의사소통에 큰 구멍이 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국제위원회에 대한 오해는 더욱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회를 통해 국제위의 활동 목표와 방향을 회원들에게 홍보하기도 하고, 반면 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을 짚어보며, 위원회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과거 활동 개요

2005년부터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시에, 시간에 쫓기며 국제 행사에 참여해온 것을 주 업무로 여기고 지내 왔다.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활동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몇 분들은 상당한 의무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왔으며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할애해 온 사실을 보아왔다. 이런 몇 분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 협회가 국제적으로, 특히 그동안 외면되어 온 UIA에서나 그 밖의 국제 교류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협회가 현재 국제적으로 관여하여 참여하는 행사가 10여개가 되며 12~3명이 되는 국

제위원들과 고문님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해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제위원회에서 맡아온 일들은 이런 국제행사에 참여해 우리 협회의 존재를 알리고 때로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해외 행사나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여하거나 때로는 기획을 맡아 자기가 맡은 일을 담당하고 해석하고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취합하는 일 조차도 행사가 있을 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뒷좌석에 앉아있더라도 안전별로 회의 후 국가 별 접촉이나 마후교섭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 가능한 많은 다른 국가의 협회의 인사들을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기적인 회의 일정들 외에 많은 비공식적 모임들에 참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동안 위원회가 주력을 해온 국제행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UIA 총회, PPC 및 지역이사회 참석

오랫동안 한국건축가협회(이후 건축가협회)가 회원단체로서 활동을 해왔으나, 2002년 경 마후교섭을 통해 어렵게 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학회(이후 건축학회)와 함께 FIKA라는 adhoc body로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앞으로 순수 건축사 집단인 대한건축사협회(이후 건축사협회) 위주의 활동이 전개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UIA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의 경우 건축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한국에서 유치하는 것도 건축사협회 노력의 결실이다.

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 of ASIA

아시아건축사지역연합회에서도 건축사협회가 주도적으로 85년부터 회원국으로 가입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이근창 회장을 배출하여 활약을 하고 있다. 99년 서울 포럼에 이어 2008년 부산에서 ACA-13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중·일 건축사 협의회

일본의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및 중국의 중국전국건축사관리위원회와 이미 10년에 걸

친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인 증 문제 및 아시아 또는 APEC에 관련하여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금년에는 서울에서 11월에 11차 교류를 갖게 되어 있다.

한·몽건축사 단체 상호교류

몽골의 몽고건축사협회와의 교류를 10여 년에 걸쳐 1년에 한 번씩 양국 간을 교대로 방문 교류해 왔다. 금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자는 약정을 맺고 1년에 2회로 확대 교류하기로 한 바 있다.

APEC 건축사 추진위원회

지난 2005년 대한민국도 APEC 산하의 인력개발 실무그룹(HRDWGC)내에 APEC Architect Project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14개국 중 한 회원국이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건교부에서 이 업무를 위임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송기덕 전회장이 위원장으로 각 단체에서 추천한 10명의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현재 216명의 APEC등록건축사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각 국 협회와의 교류

일본건축사협회연합회(JIA)와 교류를 시작한 이래 점점 더 비중을 높이고 있다. JIA는 우리와 같이 순수 건축사로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로 오랫동안 건축가협회와 교류를 해온 바 있다. 현재 건축가협회의 경우 회장을 역임한 후 JIA총회에서 명예회원이 되는 의례를 지내고 있는 바, 우리 협회도 내년부터는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합의를 된바 있다.

미국건축사협회(AIA)도 건축가협회와 6년전부터 업무제휴를 맺어 오고 있으며 건축가협회 회원 중 활동이 두드러진 분들에게 명예회원(HFAIA)을 주고 있다. 또한 건축가협회는 미국건축사협회의 계속교육 제공자로 등록하여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미국건축사협회도 순수한 건축사만의 단체이다. 위원회에서는 하루빨리 미국건축사협회(AIA)와도 업무제휴를 하여 상호인증 등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정보교환에 주력을 다하고 좋은

시스템을 배우고 더 많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자 하고 있다. 이런 일환으로 처음으로 금년 AIA총회에 본 협회의 대표단 두 분이 참석했으며, 이 중 이근창 아카시아 회장은 명예회원(HFAIA)을 수여 받은 바 있다. 현재 세계 건축의 중심에 서있는 네덜란드 건축계와의 교류를 새롭게 정착하기 위해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등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시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교류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

앞에서 설명한 국제 행사 위주의 활동이 국제위원회의 활동을 다른 위원회와 격리시키고 오해를 사는 결과까지 초래해온 것으로 사료된다.

근래에 건설의 설계겸업, 미국에 이은 EU와의 FTA 협상, 건축사의 상호인증 등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거세지고 있으며, 우리 협회는 이런 추세에 대응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개혁과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협회의 모든 분야가 변화되어야 한다. 시장의 변화와 건축사에 대한 인식의 저하, 그리고 높아지는 경쟁력의 어려움 속에서 점점 힘들어져가는 우리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어야하고,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경쟁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런 활동들이 협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잘 홍보 되어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건축사의 인식제고에 일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목표와 활동방향을 정하고, 그 큰 바탕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정함으로써 회원들을 위한 활동 방향에 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많은 부분 각 위원회와의 협력과 교류가 없이는 성과를 이룰 수 없다고 본다.

위원회의 목표와 활동 방향은 협회의 정관에 따라 회원의 권익보호와 국제경쟁력 향

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기의 목표에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기 위해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술한 각 종 국제 행사에 참여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하는 것은 협회의 활동과 국내 건축사들의 활동상을 발표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둘째, 각 국의 제도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전망에 대한 정보망 확보를 통한 건설의 설계 겸업 및 시장 개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 체제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우선 각 국의 협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 확보를 함과 동시에 각 국의 건축 통신휘 제도 운영 등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협회나 건설 관련 제도 등의 정비를 위해 유관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홈페이지, '건축사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국제적 변화에 대해 홍보하고 활동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건축사들의 활동 현황 파악 및 홍보는, 국내에 있는 해외 건축사 면허 소지자들 및 회원들의 해외 진출 현황을 파악 홍보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언

국제위원회는 협회 내에 존재가 가능하다.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회원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협회의 봉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항상 문을 열어놓고 개방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임원과 회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니 많은 격려와 조언을 바란다. <신준규/정회원,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